

유치환의 경주 시절과, 시의 공간 감수성

—시간의 지속 속에 존재하는 작은 지척

송희복*

|| 차례 ||

1. 서론(緒論) : 들어가는 말
2. 유치환의 경주 시절과, 전기적 삶의 재구성
3. 유치환의 경주 체험과, 공간 감수성의 시학
4. 서정주의 신라 정신과, 유치환의 경주 체험
5. 약론(略論) : 마무리하는 말

[국문초록]

본 연구는 시인 유치환의 경주 체험을 중심으로 삶의 전기적인 부분을 복원해 보면서 시의 구체적인 체험의 반영을 공간 감수성의 차원에서 탐색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의 경주고등학교 제자인 서영수의 글 「청마 시인과 경주」이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었고, 그 밖에 청백 동인으로서 유치환을 교장으로 모셨던 당시에 경주고등학교 교사를 재직했던 시인 김해석의 「위대한 시인의 위대한 아내」란 산문과, 허만하의 저서 『청마풍경』도 보조 자료로 활용되었다. 경주 시절의 시편 「잠자리—석굴암(石窟庵)에서」는 이른바 ‘역년 비정’의 초시간성을 소재로 한 것이다. 영겁이란, 다름이 아니라 외롭게 떠 있거나 떠다니거나 하는 목숨의 반증이 있어야만 존재하는 순수한 허무의지이다. 경주 시절의 유치환이 창작한 최고의 명시인 「고분에서—경주 황오리 오(五)호총」은 시가 가지는 특유한 공간성, 장소정체성 및 공간 감수성이라고 해도 좋을 공간성을 지니고 있다. 서정시가 시간의 순차적인 단계에 따라 삶의 진행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공간의 조형성 속에서 무시간(성)의 성취 경험을 조성해 보이는 것이라면, 유치환의 시편 「고분에서」는 서정주가 보여준 윤희와 연기의 시학과 맥락을 함께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또 그의 시에는 경주 체험을 드러낸 또 다른 시 「사면불」처럼 윤희 사상과는 별개의 회향(廻向)의 삶의식을 수반하기도 한다. 서정주의 신라 정신과, 유치환의 경주 체험은 비

* 진주교육대학교 국어교육학과 교수. hbsong@cue.ac.kr

슷한 것 같지만 서로 뚜렷이 다르다. 신라를 선행적인 고향으로 삼았던 서정주의 표상이 바로 서정주의 신라 정신이었다. 이것은 소위 역사의식의 자각이다. 자신의 시집들에서 시간성의 감수성이 잘 드러나고 있다. 반면에, 유치환이 체험한 경주는 서정주의 관념적인 시간의식에 자리하고 있는 신라로 영속되는 매개 개념이 아니다. 그에게 있어서의 경주는 삶의 직접성에 뿌리를 내린 실존적 거점으로서의 장소 개념이다. 따라서 그의 장소 정체성은 시적이면서도 동시에 지리적인 감수성을 환기시키는 조건이 되었다.

주제어 : 유치환, 경주, 경주 체험, 공간 감수성, 장소성.

1. 서론(緒論) : 들어가는 말

두루 알려진 사실이지만, 시와 사상의 텍스트상호관련성의 측면에서 볼 때, 청마 유치환은 시인으로서 큰 족적을 남긴, 대가적(大家的)인 의미의 시인이다. 우리의 근현대 시문학사에서 그만큼 서정시를 명상과 철학의 수준에 올려놓은 시인은 없다. 이 사실은 시인으로서의 그의 보기 드문 면모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생애에 걸쳐 여러 군데에 걸쳐 옮겨 살았다. 출생지인 거제에서부터 종생지인 부산에 이르기까지 많은 공간 이동을 한 것으로는 문인으로서 유례가 없을 정도이다. 고도(古都) 경주에서도 5년 반에 걸쳐 두 차례 거주한 적이 있다. 이 시기에 자신의 경주 체험에서 비롯된 산문 1편과 시편 7편을 최소한 남겼다. 경주를 소재로 한 그의 시편이 모두 7편에 이르지만, 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것도 몇몇 편이 추가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치환의 시 가운데 더 이상의 것이 경주와 관련해 빚어졌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논지를 전개해 나아갈 것이다. 첫째, 유치환의 경주 시절의 삶을, 증언된 기록을 통해 재구성하고자 한다. 둘째, 유치환의 시에 반영된 경주 체험의 구체적인 양상을 밝히고자 한다. 셋째, 유치환의 경주 체험이 반영된 시편을 중심으로, 공간 감수성의 시학의 실체를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정주의 신라 정신과, 유치환의 경주 체험이 서로 다른 점을 비교론의 관점에서 파악할 것이다.

요컨대, 경주 체험이 유치환의 시 세계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느냐 하는 점을 접근해가는 것이 본 연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다. 본 연구자에게 있어서의 유치환의 경주는 시간과 역사를 초월하는 공간으로서의 공간 감수성, 즉 근래에 이르러 비평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는 바, 장소성, 장소애, 장소 상상력 등의 개념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해명해가는 과정에 놓여 있다.

2. 유치환의 경주 시절과, 전기적 삶의 재구성

청마 유치환과 허유 하기락의 관계는 각별했다. 단순한 친구의 관계를 넘어선 두 사람은 경남 지역 출신의 시인과 철학자로서 아나키즘의 사상을 공유하는 사상적인 동지이기도 했다. 하기락은 경북대 철학과 교수이기 이전에 아나키스트로도 유명했다. 유치환 역시 젊었을 때 아나키즘에 경도되었고, 이에 관한 연구도 충분히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다. 하기락은 1948년 봄에 자신의 고향에 있는 함양 안의 중학교 교장 직을 유치환에게 주선해 주었다. 또 그는 6. 25 이후에는 경북대학교에서 강의할 수 있게 했다. 박철석의 청마 연보에 의하면, 1953년에서 이듬해까지 경북대학교에서 강의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¹⁾ 그 만큼 두 사람은 막역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유치환 시의 아나키즘적인 사상성을 논의할 때마다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하기락이다.

유치환과 대구의 인연에 관해서는,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그가 1954년에 경북대학교 전임강사로 재직했다고 한다.

청마 유치환(靑馬 柳致環)시인이 대구와 깊은 연을 맺은 것은 1954년 봄부터였다. 경북대학교 문리과대학 국문과 전임강사가 되면서였다. 같은 해에 이 학교의 영문과 전임강사를 함께 시작한 인연으로 김종길(金宗吉) 시인과는 열여덟의 나이차에도 불구하고 향촌동 시절의 막역한 술벗이 된다.²⁾

1) 박철석 편저, 『유치환』, 문학세계사, 1999, 307면, 참고.

2) 정영진의 대구 이야기, 매일신문, 2006, 11. 6.

박철석의 연보에는 유치환이 1955년에 안의중학교 교장을 사임함과 동시에 경주고등학교 교장으로 취임했다고 한다. 만약 그렇다면 안의중학교 교장을 하면서 경북대학교 전임강사로 재직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요즘의 관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다. 만약 그렇다면 전임강사는 초빙 강사 정도로 해석돼야 하는데, 이 역시도 교통이 불편했던 시절에 다른 지역에서 교장으로서는 출강하기란 극히 어렵다. 이에 관해선 박철석의 연보가 잘못 되었으리라고 본다. 박철석의 유치환 평전에는 연보와 성격이 다른 행적이 기술되어 있다. 아마도 이것이 유치환의 경주 체험이 비롯되는 삶의 행적에 관한 진실이 아닌가 한다.

청마가 경북대학교에서의 맡은 과목은 90분짜리 교양과목인 『문학개론』이었다. 청마로서 90분짜리 강의는 힘겨운 정신적 부담이 되기도 하였다. 한번은 90분 강의를 마치고 교수 휴게실로 들어서는 김종길 씨를 바라보면서 농담조로 “나는 이야기할 것이 없어서 50분을 채우기도 힘이 드는데……무슨 할말이 많아서 90분을 다 채우느냐.” 고 했다는 일화가 유명하다. (……) 청마는 문학의 정의를 논하고 시의 원리를 논하는 이론 중심의 강단 생활을 중도하차하고 고도 경주고등학교 교장 자리로 옮긴다.³⁾

마치 역마살이 든 사람처럼 평생을 걸쳐 여기저기에 스무 번 넘게 옮겨 다닌 유치환은 약간의 방랑벽이 있었다. 한 곳에 진득하게 오래 살지 않았다. 1955년부터 그는 경주에서 생활하기에 이른다. 그는 이때부터 8년간 대구와 경주를 오가는 생활을 한다. 8년간의 경북 생활 중에서 5년 6개월간에 걸쳐 경주에서 보낸 것이다. 그의 경주 생활은 1955년 2월부터 1960년 3월까지와 1961년 5월부터 1962년 3월까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주고등학교장(사립)으로 부임한 그는 수 년 간을 재직하다가 이승만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발표함으로써 타의에 의해 학교장 직에서 물러났다. 그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1960년 3월 30일에, 그가 직업이 없는 상태로 경주에서 대구로 이사를 했다. (대구 생활은 경주를 가기 위한 교두보나 두 차례 경주 생활을 이어주는 교량

3) 박철석 편저, 앞의 책, 201면.

의 역할을 잠시 했을 뿐이다.) 이로부터 1년 남짓한 시간이 지난 4. 19 직후에, 그는 경주여자중고등학교(공립) 교장으로 복귀한다. 그가 경주를 떠나고 다시 돌아온 것은 교육계의 늘 있는 인사이드가 아니라, 문인으로서의 정치적인 처신에 까닭이 있었던 것이다. 참고로, 교장으로 보낸 유치환의 두 차례의 경주 생활 가운데 부임과 사임의 연도 및 날짜는 다음과 같다.

경주고등학교 교장(1955. 2. 1~1959. 9. 30)

경주여자중고등학교(1961. 5. 15~1962. 3. 4)

유치환이 경주에 들어 왔을 때의 사정과 그의 경주 시절의 삶의 편린은 그의 제자인 서영수의 글 「청마 시인과 경주」(『경주문화』, 제8호, 경주문화원, 2002. 12)에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 글은 청마 연구의 사료로 향후 잘 활용될 수 있는 글이다. 먼저 그가 경주에 들어 왔을 때의 사정은 다음과 같다.

청마 선생이 처음 경주 생활을 시작한 것은 1955년 봄부터였다. 고도 경주의 거리는 6.25 전후(戰後)의 목마름으로 한산하고 고적했다. 전국이 다 그러했지만 가난에 찌들려 폐허 아닌 폐허의 상태였다.

머리 위엔 황사바람이 허공을 채우고 양철집 초가집이 다닥다닥 붙은 마당엔 누더기 옷이 빨랫줄에 매달려 춤을 추던 시대였다. 그러다 보니 정전 직후의 학교는 정상적이 아니었다.

청마 선생이 교장으로 부임한 경주고등학교도 예외일 수 없어 건물을 육군병원으로 미뤄 주고 학교 옆 운동장과 농업 실습지를 다져 가교사를 지었다. 양철지붕의 판잣집 교사는 검은 콜탈을 칠해 멧을 부렸고 비가 오면 위에서 빗소리가 장단을 맞추고 맑은 날은 옆 반에서 들려오는 소음으로 하여 국어시간이 영어시간이 되기도 하고 수학시간은 피아노 소리를 들어가며 셈을 해야 했다. 그나마도 하급생은 그 판자교실 하나 차지할 수 없어 플라타너스 그늘 아래 소후관을 세우고 수업하다가 갑자기 비가 오면 오전이라도 집으로 가야했던 기막힌 나의 고교 시절이었지만, 청마 시인이 교장으로 오신다는 소문에 모두들 기쁨과 기대에 들떠 있었다.

나는 한 울타리에 병설돼 있는 경주중학교 3학년이었으니 경주고에 진학해야겠다는 결심을 굳힐 수밖에 없었다.

(.....)

부임하신 이듬해 군당국의 협조로 가교사 일부 자리에 벽돌로 올린 2층 신건물에 세워졌고 그 2층에 청마 선생이 집무하던 교장실이 있었다. 그곳은 남산과 마주하여 가까이는 반월성 송림이 넘실거렸고 안압지 첩성대가 사이에 들어 있어 고도의 정취가 가득한 풍경을 드러냈다.⁴⁾

시인 유치환의 경주 생활은 이와 같이 시작되었다. 전후의 스산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그의 경주 생활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이 글의 필자인 서영수는 전쟁 직후의 폐허에서 2층 신건물이 건설되고, 그 2층에 교장 집무실이 갖추어져 고도의 정취가 느껴지는 정경이 드러나기까지의 과정을 있는 그대로 서술하고 있다. 시대적인 간고함이 묻어나 있다. 교장 유치환의 특장을 들었다는 분의 증언이 남아 있다. 다음 글의 필자인 김하준은 문교부의 공무원으로 재직할 바 있었다.

고3이던 어느 날 교과 선생님이 결근하시고 교장 선생님께서 우리 반에 들르셨다. 학창 시절을 회고하시며 어느 여학생과의 주고받은 편지 내용도 말씀하시면서 연애하신 얘기를 들려주시면서 우리들의 혼을 뺐는데, 하도 재미있고 신기하여 숨소리를 낮출 지경이 되었다. 처음에는 남의 얘기를 하시는 줄 알고 너희도 이제 그럴 나이가 되었다며 모범적인 남녀교제를 훈화하시는 것 같았는데 교실문을 나가시기 직전 ‘그 여성이 우리 할망구야.’ 하시고 꺾꺾 웃으시며 손을 흔들고 나가셨다.⁵⁾

유치환은 부인과의 혼전(婚前) 연애담을 학생들에게 들려주었던 것이다. 대중 매체를 거의 접하기 힘든 그 당시 학생들의 흥미와 욕구를 잘 고려하고 배려한 훈화인 것 같다. 이 이야기를 들은 구술자에게는 평생 잊히지 않는 얘

4) 서영수, 「청마 시인과 경주」, 청마문학회 편, 『다시 읽는 유치환』, 시문학사, 2008, 396-398면.

5) 청마문학회 편, 같은 책, 388-389면.

깃거리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시인 서영수에 의하면, 교장 유치환의 혼화는 늘 짧고 명료했다고 한다. 말하자면 ‘침묵하는 시간이 많고 말재주도 애써 가꾸려 하지 않는’⁶⁾ 그의 품성을 가진 것에 기인한 바에 적지 않으리라고 본다. 서영수는 경주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시 창작에 관한 지도를 적잖이 받았다. 또 그가 기억하는 유치환의 경주에서의 음주 생활도 드러난다. 유치환의 애주(愛酒)는 세간에 잘 알려져 있다. 술을 좋아하고 술에 취하고, 취하면 술버릇은 없지만, 취할수록 웃음소리가 잦고, 음성이 높아진다. 평소에는 과묵해도 주석에선 흔쾌하게 얘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 유치환도 이런 부류의 사람인 듯하다. 그 당시의 경주 황오동의 쪽샘 마을은 마을 전체가 술집이었다고 한다. 초가집과 나직한 기와집으로 이어진 좁다란 골목을 끼고 돌면 장고소리, 북소리, 노랫소리로 가득해지면서 고도의 한밤을 청사초롱으로 밝혔다고 한다. 유치환에겐 이 쪽샘 마을에 몇 군데 단골집이 있었다. 특히 ‘오륙구’ 술집이 대표적인 단골집이었다. 제자 서영수가 기억하는 이 ‘오륙구’는 이랬다.

청마 선생 하면 언제나 떠오르는 (……) ‘오륙구’는 수동식 전화의 그 집 번호가 569번에서 지어진 상호며 주모 옥란이란 여인은 권번기생 출신으로 미모가 단정하며 화류계의 거물격인 의젓한 중년이였다. 전통 악기가 즐비한 고급 술집이었는데 손님이라도 오면 이 집을 찾는 일이 많았다. 주모 옥란 여인은 청마 선생을 무척 존경하며 따랐고 청마 선생 역시 아무 허물없이 믿고 드나들던 처지 같았다. (……) 외상값을 갚을 때도 돈의 날장을 세는 일은 결코 없었다.⁷⁾

권번 기생 출신의 주모 옥란은 시인이면서도 지역의 교장인 유치환을 존경했기 때문에 서로 믿는 상거래를 할 수 있었다. 경주 시절의 유치환은 주촌(酒村)인 쪽샘에서 작곡가 권태호와 심야에 끝없이 술판을 벌이고, 시인 조지훈이 문득 찾아오면 시국을 걱정으로 토론하고, 경주 지역의 ‘청맥(靑麥)’ 동인과 더불어 문학의 감수성을 서로 교감하였다. 이 무렵에 있었던 일. 청맥

6) 같은 책, 399면.

7) 같은 책, 404-405면.

동인으로서 유치환을 교장으로 모셨던 시인 김해석—당시에 경주고등학교 교사를 재직한—은 「위대한 시인의 위대한 아내」(『청마문학』, 제4집, 2001, 2)란 산문을 통해 다음의 증언을 남기기도 했다.

어느 날 사모님께서서는 내게 허물없는 웃음을 지으며 재미있는 이야기를 꺼내 주셨다. 「과도야 날 어찌란 말이나」의 주인공으로 알려진 L시인이 경주에 와서, 청마 선생은 L시인과 H여교장 셋이서 함께 불국사에 놀러갔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한 방에 함께 잠을 자게 되었는데, 두 분의 여성은 방바닥에 자고, 청마 선생은 불박이 벽장에 잤다는 이야기였다. 사모님은 이 이야기를 하는 내내 웃음보를 터뜨리셨다.

거나하게 술을 마신 주당 일당이 청마 선생과 주모를 앞세우고 교장 관사를 찾았을 때, 자정이 넘은 시간인데도 사모님은 친절하고 정성스럽게 술상을 차려 주셨다. 성님, 성님하고 보채는 주모의 혀 꼬부라진 주정도 사모님은 웃음으로 받아두셨다.⁸⁾

이 이야기는 유치환의 부인인 권재순의 너그러운 관용과 넉넉한 마음씨를 나타내기 위해서 쓰였다. 유치환과 이영도가 예상외로 관계가 아닌 줄 알면서도 두 사람이 물론 잠자리는 다르지만 한 방에서 잔 것에 대해 투기를 하지 않고 웃음보를 내내 터뜨렸다는 것은 보통의 심성은 아닌 듯하다. 모든 일은 남편에게 맡기고 믿는다는 것이 그 부인의 생활신조인 것 같다. 무엇보다도 유치환의 경주 체험 중에서도 가장 울림이 크게 남는 것은 다음의 일이다. 시인 서영수의 증언. 정치권력과 맞부딪히는 당당한 다음의 모습은 깊은 감명을 준다.

……중앙의 고위층이 경주를 방문하거나 시국 연설을 할 때면 전교생이 현수막을 들고 환영하러 나간 일이 종종 있었는데 청마 교장은 이것이 못마땅했다. 그래서 경주고가 불참할 때가 흔하다 보니 경찰서장이 지프차를 타고 직접 학교에 와서 언성을 높이는 광경을 본 일이 있다. 공부하는 학생을 이용해선 안 된다

8) 같은 책, 394면.

는 단호한 의지, 싸우지 않고 침묵으로 대항하시던 모습은 지금도 영상처럼 눈에 선하다.⁹⁾

유치환은 공부하는 학생을 정치의 도구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보았다. 사사건건 마찰을 빚었을 것이라고 보인다. 그는 자유당 말기의 말기적인 현상을 목도하면서 정권이 길게 가지 않을 것으로 보았을 것이다. 그는 대구의 신문에 정치권력을 비판하는 글을 자주 신는다. 이러한 일들이 빌미가 되어 종내 교장 직을 내놓아야 했던 것이다. 4. 19 직전에는 저항시 「뜨거운 노래는 땅에 묻는다」를 발표하기도 했다. 유치환 같은 문화예술계의 거물급 인사도 감시와 처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던 시절의 일인 것이다. 타의에 의해 경주고등학교장을 사임한 그는 동해안 산중의 고찰에 칩거하기도 하고, 전남 해안가와 제주도를 옮겨 다니면서 쉬기도 했다.

그 후 경주로 돌아와 1960년 3월 30일에, 그가 직업이 없는 상태로 경주에서 대구로 이사를 했다. 그는 이 무렵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대구는 자연미가 박(薄)한 곳이라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오라는 곳이 없어 (어쩔 수 없이) 갑니다, 라고 말이다. 1년 남짓한 시절의 4. 19 직후에는 그가 경주여자중고등학교(공립) 교장으로 현직에 복귀하게 된다. 이때 지병인 신경통이 도져, 앉아서 취임 연설을 한다. 경주에 다시 돌아온 후에는 쪽샘행도 적잖이 자제하였다고 한다.

유치환이 경주고등학교의 연극부를 전국 수준으로 드높이는 등에 있어서 교육자로서 경주에서 적잖이 성과를 냈다고 한다.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증언을 남기고 있다.

시인으로서 『청마 풍경』의 저서를 낸 허만하는 경주 시절의 유치환에 관해 증언을 남기기도 했다. 앞에서 말한 바 있었거니와, 유치환이 경주에서 만난 사람 가운데 주목을 요하는 이는 권태호(1903~1972)이다. 그는 일본에서 성악을 공부한 후 귀국해 현해탄을 넘나들면서 200회 이상의 독창회를 연 명(名)테너였다. 그의 이름은 일본에서도 알아주었다고 한다. 그는 해방 이후엔

9) 같은 책, 400면.

음악 교육의 초석을 닦았고 작곡가로서도 명성이 높았다. 잘 알려진 작곡 가운데 윤석중의 동시에 곡을 붙인 「봄나들이」가 있다.

(경주 시절의 유치환의 제자인-인용자) 이근주가 군에 있을 때 휴가를 와서 시화전을 열었을 때 청마가 모습을 보였다. 시인으로 출발하려는 제자의 조출한 잔치에서 그는 방명록에 ‘시보다 인생을, 인생보다 진실을’이라는 잠언을 쓰고 서명하였다. 바바리코트를 걸친 그가 모습을 보였던 그 시화전 장소는 경주의 성림 다방이었다. 1961년 가을이 익어가는 무렵이었다. 시에 대한 그의 자세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이다. 낮술에 취해 있던 성악가 권태호와 잠시 이야기를 나눈 그는 얼른 자리를 뜰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대주가로 이름이 있는 이 성악가가 후일 청마의 사돈이 되었다. 이 음악가는 언제나 시인 구상이 선물로 준 나무 지팡이를 애용했었다.¹⁰⁾

권태호는 유치환의 5년 장이지만, 두 사람은 경주에서 술친구로 허물없이 지냈다. 두 사람이 고주망태가 되면, 두 사람의 아들딸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모셔가기 위해 술집에 어김없이 찾아왔다. 권태호의 장남과 유치환의 막내딸이 각자의 아버지를 뒷정리하는 인연으로 만나 훗날 부부가 되었다.

3. 유치환의 경주 체험과, 공간 감수성의 시학

유치환은 경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바로 산문 한 편을 쓴다. 제목은 「경주에 와서」이다. 이 산문은 그다지 긴 글이 아니다. 이 지역에 사는 조각가의 초옥을 방문하여 본 서예 작품이 줄글의 감성을 촉발시켰던 것. 글의 처음과 마지막은 경주의 풍광을 묘사하고 일상의 감상(感想)을 드러내는 것으로 시작해 끝을 맺는다.

10) 허만하, 『청마풍경』, 솔출판사, 2001, 93면.

경주 온 지도 벌써 한 달. 사방 산들이 멀찌감치 물러들 앉아 커다랗게 하늘을 우러른 널따란 별관 가운데, 바로 교문 앞으로 안압지의 외딴 고루(古樓)와 반월성지의 완만한 구릉을 조석으로 바라다보며 지내는 하루하루가 오랜만으로 말할 수 없이 내게 쾌적하다. 더구나 경칩을 앞두고 먼 들 끝 버들들에 한결 파름한 빛깔이 감겨들어, 봄을 기다리는 마음에 더욱 애련한 정을 금할 수 없게 한다.¹¹⁾

나는 이 날도 이름마저 아름다운 일정교(日精橋), 월정교(月精橋)가 걸렸던 데란 남천강(南川江) 기슭을 거닐며, 아까 그 위창 선생의 글귀가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아서는, 오늘 내가 고독할 수 있음이 향기롭고 또한 고독함이 절로 빛나는 듯 오히려 흐뭇이 마음이 즐거운 것이다.¹²⁾

산문 「경주에 와서」 시작과 끝을 인용한 부분이다. 경주의 풍광과 일상의 감상을 잘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심미적인 것과 담백한 맛이 서로 어울린 수필의 아취 같은 것이 한껏 고조한 느낌을 준다. 위창 오세창의 글귀는 ‘백세시대공이립(百世之大功易立)이요, 일기지사욕난제(一己之邪慾難除)’라. 영원히 떨칠 큰 공은 세우기 쉽거니와, 한 몸의 사사로운 욕망은 없애기 어렵다. 그가 이 경인구에 투사되기란 어렵지 않았으리라. 유치환은 이 경인구를 통해 그다운 정신의 높이와 사색의 폭을 보여준다.

날짜와 時間을 밝힘조차 無用함이어.

내 이 영겁의 문을 들어서자 무한한 온유와 정적으로 희부연 액체 같은 잠김 속에 肅然치 않을 수 없었으며 다시 그 문을 돌아 나서자 이내 無言일 수밖에 없음을 입었거니

(……)

어두운 岩塊를 쪼개고 깨뜨려

11) 박철석 편저, 앞의 책, 167면.

12) 같은 책, 168면.

億年 非情의 時空에다
悲願을 依託한 그 애달픈 목숨이
이 한 때의 저녁을 쉬일 그를 찾아
落落히 저무는 가지 끝에 앉는다.

영겁이란 오직
아아 이 혈혈표표한 목숨의 反證 없이는 있지 않은 虛요 無!

— 「잠자리-石窟庵에서」 부분

이 시는 『제9시집』(1957)에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유치환이 경주에 와서 쓴 시인 것 같다. 형이상학적인 사상의 높이에서 ‘우주의지’의 상태를 제시한, 그 당시에 한국시의 또 다른 면모와 진경에 도달한 보기 드문 시이다.

이 시를 논의하기 전에, 그가 석굴암을 시적 소재로 수용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싶다. 그것은 즉, 경주에 거주하기 이전에 상재한 시집 『청마시집』(1954)에 「석굴암대불」이 실려 있다. “목놓아 터뜨리고 싶은 통곡을 견디고 / 내 여기 한 개 돌로 눈감고 앉았노니”로 시작해 “내 여기 한 개 돌로 / 寂寂히 눈감고 跏趺坐하였노니”로 끝맺는 이 시는 석굴암의 본존불이 인간 목숨의 일회성과 유한성에 대한 발원을 수용함으로써 큰 돌덩어리로 된 하나의 표상으로써 적멸을 이루었음을 노래하고 있다. 이때 시간의 아득함은 공간 속으로 무화되고 있다.

시편 「잠자리-石窟庵에서」는 「석굴암대불」에서 공간 속에서 시간이 무화되는 경우처럼 ‘억년 비정’의 초시간성을 소재로 한 것이다. 영겁이란, 다름이 아니라 외롭게 떠 있거나 떠다니거나 하는 목숨의 반증이 있어야만 존재하는 순수한 허무의지이다. 이 허무의지는 억년 비정의 우주의지이다. 초시간적이고도 몰감정적인 시인의 시공간관을 엿볼 수 있는 시다.

千年을 가면
亞刺比亞沙漠 썸이나 되랴?

그러나 여기는 옛 徐羅伐 慶州.

時間은 공중 높은 데서 오는 것인가?

나무가 고요히 落葉져 내리듯

그렇게 판 몸짓 하나 없이

한결같이 沈下하는 그 앙금 속 멀찌가니.

(……)

아아 時間 위에 繡 놓인 이 時間과

나의 길다란 그림자의 逆投!

— 「逆投」 부분

옛 서라벌의 과거는 이미 아득히 멀어져 있다. 시간은 늘 멀찍하게 정지되어 있고, 시간을 인식하는 것은 지금-여기에서 거꾸로 올라가는 것. 이 거꾸로 올라가는 것이 시간 개념의 역투 현상과 같은 것. 이 시의 숨어있는 화자인 나는 지금-여기인 현재의 공간에 처해져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옛 서라벌의 과거는 ‘時間 위에 繡 놓인 時間’ 으로 나로부터 멀리 격리되어 있다. 나에게 있어서의 신라란, 다름이 아니라 시간의 관념이 길고도 기다랗게 거꾸로 내던져져 있는 한 그림자일 뿐이다.

이 대목에서 유치환 시의 장소정체성의 개념에 관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장소정체성이란, 최근에 부쩍 논의되고 있는 지리학의 개념이다. 이 개념은 장소 경험의 주체인 인간이 특정의 장소와 관계를 맺음으로써 형성되는 개성적인 관념이나 의식을 말하는 것이다. 하이데거가 장소를 가리켜 존재의 진리가 구현되는 현장이라고 지적한 바 있듯이, 장소정체성의 대표적인 사례는 거주(dwelling)이다. 특정의 장소에서 거주한다는 것은 인간의 실존을 의미하는 것이다.¹³⁾ 시인 유치환은 경주라는 특정의 장소에서 인간 존재의 의

13) 김덕현, 「장소와 장소 상실, 그리고 지리적 감수성」, 『배달말』, 제43호, 2008, 12, 7면, 참고.

미랄까, 실존과 본질의 대립성이랄까 하는 물음을 시의 형식 속에 던지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초시간성의 관념과 장소정체성은 시인 유치환이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철학적인 천문지리관이 아닌가 하고 짐작해본다.¹⁴⁾

소리도 움직임도 없는 흙더미나 돌덩이에서
차라리 時間의 비정(非情)과 목숨의 무상함을 절감한다.

左右 섬섬옥수를 두었던 위치엔 둔한 광채를 머금은 황금 팔찌
보옥 목걸이도 한 쌍 귀걸이도 있을 그 자리에 그대로

짐짓 절벽 같은 무작정한 시간의 지속 속에선
千年 日月도 개미 발자국보다 적은 지척인 것

(……)

육신의 머리칼 하나 떨어뜨림 없는
이 감쪽같은 둔적(遁迹)이야 생자필멸의 여지없는 증거가 아니라 물이
김 되고 김이 다시 물 되는 그 길인 것

그리하여 임은 광주리를 이고 소박한 아낙네로
시방 저 저기 오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나와 더불어 지금 무궁한 하늘을 바라보는
나의 이 지애(至愛)한 사람은 아닌가

— 「古墳에서-경주 황오리 五호총」 부분

14) 경북대학교 문리대에서 시론을 강의하던 때 경북대 의대를 나온 문학청년 허만하는 청마를 흠모하며 시를 썼다고 한다. 1960년 이른 봄 허만하는 청마의 집을 방문해 "선생님, 시인이 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을 하셨겠습니까?"라고 묻자 "아마 천문학자가 되었을 기라."라고 서슴없이 대답했다. (네이버 검색 : 출처-청마 유치환, 작성자-노상균)

이 시는 유치환이 교장으로 재직하는 경주고등학교의 인근인 황오리에서 유물 발굴이 있을 때 경험한 내용을 시로 재구성한 것이다. 그의 거주지에서 체험된 것이란 점에서, 이 시는 현존의 장소성이 중시된 것이라고 하겠다. 이 시는 시집 『미루나무와 남풍』(1964)에 실려 있다.

이 시집에 대한 작품론으로는 이형기의 「유치환론- ‘미루나무와 남풍’을 중심으로」(문학춘추, 1965. 2)가 있다. 여기에서, 이형기는 시편 「고분(古墳)에서」를 가리켜 ‘천 년 전 신라의 옛무덤 앞에서, 무덤 속에 잠자는 사람이 소박한 아낙네가 되어 지금 광주리를 이고 걸어오는 것을 실감하는 청마의 윤희 사상’¹⁵⁾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이 해석은 유치환 시의 경주 체험에 관한 한, 매우 소중한 비평적 견해이다.) 또 다른 논의가 있다면, 그건 다름이 아닌 허만하에 의한 것. 다음의 인용문을 보면, 유치환의 창작 배경 및 그 동기가 자못 흥미롭다.

……목숨의 실상을 그린 이 시는 원래 「황오리 5호총」이란 제목으로 1962년에 발표된 작품(『자유문학』, 1962년 11월호)이나 시집에서는 이 제목을 부제로 삼고 있다. 이 때문에 한 연구 자료는 이 작품을 시집 미수록 작품으로 정리하는 혼란을 보이고 있다. 내가 조사한 바로는 경주 황오리 소재의 이 고분 발굴은 5. 16 후 반년이 지난 1962년 1월 11일부터 16일에 이르는 사이에 실시되었다. 이때 청마는 경주여중 교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반월성과 첨성대에서 가까운 황오리 고분군 둘레는 경주 시절의 청마가 즐겨 찾던 곳이었다. 유난히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 이 발굴이 시행되었던 것은 경주 역에서 불국사에 이르는 관광도로 공사 도중에 우연히 고분의 일각이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이 고분 발굴 현장을 견학한 청마가 그의 시풍에 어울리는 시상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이름 없는 황오리 5호 고분을 위해서나 청마를 위해서 다행한 일이라 생각된다.¹⁶⁾

경주 시절의 유치환이 창작한 최고의 명시인 「고분에서」는 이 같은 시대

15) 청마문학회 편, 앞의 책, 326면.

16) 허만하, 앞의 책, 94면.

적인 배경 속에서 창작되었다. 이 시는 시가 가지는 특유한 공간성이 있다. 이 공간성을 두고 공간 감수성이라고 해도 좋다. 사람이나 사물의 존재를 확인하는 근원적인 두 개의 축을 시간과 공간이라고 할 때, 기억력은 시간의 파수꾼 역할을 할 것이다.¹⁷⁾ 반면에 장소 지각력은 공간에 대한 인간의 경험을 확보해 줄 것이다. 유치환은 이 시에서 시간성이란 질서의 존재를 해체하려고 하고 있다. 시간에는 감정이란 게 없고, 공간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풍경을 담는다. 필자는 불문학자 김화영이 오래 전에 쓴 에세이 「공간 감수성」을 공명하였는데, 이는 마치 유치환의 시편 「고분에서」를 염두에 두고 쓴 것 같다.

공간이 없는 시간을 상상한다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공(空)이나 철학이 말하는 무(無)를 상상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 우리의 몸이 이해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시간, 육체의 형상으로 번역되지 않은 유일한 시간은 단절된 시간 속에 모든 공간을 한데 떠받들고 있는 순간일지도 모른다. (……) (시를 포함-인용자) 예술이란 자연적인 시간을 인간 정신의 투지에 의하여 예술적 공간으로 변용시킴으로써 영원을 획득하려는 기도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리하여 공간적 영원은 지옥으로도 인도하지만 예술의 황홀경으로도 인도한다.¹⁸⁾

시간의 감정 없는 차가움 속에서 무수한 공간의 지층이 축적해 있다. 시란 것도, 무시간성의 경험 속에서 인간 정신에 의해 공간을 변용시켜 영원을 획득하려고 시도하려고 한다. 이 영원은 시간적이라기보다 공간적인 영원을 말하는 것이다. 시인 유치환이 고분에서 발견한 것도 시간적인 영원이 아니라 공간적인 변용의 영원이다. 이 대목에서 생이 순환하고 반복된다는 관념이 생성한다. 미문의 산문가이기도 한 김화영은 시의 공간성, 공간 감수성에 관한 원론의 심미감을 이미 제공해 주었다.

시는 시간적이고 선조적(線條的)인 언어 속에 표현되지만 그것은 소리와 의

17) 김화영, 『공간에 관한 노트』, 나남, 1987, 43면, 참고.

18) 같은 책, 45-47면.

미의 공간으로 탈바꿈되어야만 한다. 우리의 느리고 둔탁한 산문이 하나씩 하나씩 차례로 이야기해야 하는 삶을 시는 동시에 돌연히 말해야 한다. 불꽃처럼, 절규처럼, 돌연한 미소처럼 문득 솟아 올라야 한다.¹⁹⁾

시는 시간의 순차적인 단계에 따라 삶의 진행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공간의 조형성 속에서 무시간(성)의 성취 경험을 조성해 보이는 것이다. 불꽃처럼, 절규처럼, 돌연한 미소처럼 문득 솟아오른 생의 구경적인 표상이 있다면, 필자는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에서 묘파한 ‘내 누님 같이 생긴 꽃’이 아닌가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유치환의 시편 「고분에서」는 서정주가 보여준 윤희와 연기의 시학과 맥락을 함께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유치환에게 있어서의 사람, 즉 ‘나와 더불어 지금 무궁한 하늘을 바라보는 나의 이 지애(至愛)한 사람’은 서정주에게는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 같이 생긴 꽃’에 해당한다. 서정주의 국화꽃이 애인 갱생²⁰⁾의 환각적인 우화이거나, 여기에는 또 윤희 사상과는 별개의 회향(廻向)의 삶의식을 수반하기도 한다.

—돌아가는 것이다.

그 아득한 시원의 데로
이제는 돌아가는 것이다.

(……)

씨늘한 살갓 하나 사이하고
저쪽과 이쪽이 지척도 아니언만

19) 같은 책, 25면.

20) 여기에서 말하는 애인 갱생이란, 서정주가 자신의 시 「국화 옆에서」에 대한 해설에서 사용한 표현이다. 굳이 해석하자면, 살아있는 애인은 애인이 아니다, 죽어야 사는 애인이야말로 진짜 애인이다, 사랑하는 사람은 꽃으로 다시 태어난다, 등의 의미를 내포한 관념이다.

소리도 닿지 않는 그 역겹리-
이제는 돌아가는 것이다.

석양길 가는 이의
가물가물 뒷자취여, 답 없음이여.

- 「사면불」 부분

이제는 돌아가는 것이다. 회향은 회전취향(廻轉趣向)의 준말이다. 모든 불교 의식은 회향의 뜻을 반영한다고 한다. 회향의 사전적인 정의는 자기가 닦은 선근공덕을 다른 사람이나 자기 수행의 결과로 돌리는 것이다. 오랜 세월 에 걸쳐 수행한 노승이 있다고 하자. 이 분이 다음의 말을 중얼거린다고 하자. “산중에 앉아 평생 중생들의 도움으로 살았으니, 이제는 중생 속으로 회향해야지. 모든 중생이 안락할 수 있도록 원(願)을 세우고, 또 인연 따라 물 흐르듯이 흘러가야지.” 이 중얼거림이 바로 회향의 참뜻인 게다.

사랑한다고……사랑한다고……
이 한마디말 님께 아뢰고, 나도
인제는 바다에 돌아갔으면!²¹⁾

이 인용문은 서정주의 시편 「석굴암 관세음의 노래」이다. 유치환의 「사면불」과 마찬가지로 회향을 뜻을 반영한, 소위 불상시(佛像詩)이다. 유치환의 경주 체험이 반영된 대부분의 시는 무시간성(timelessness)의 경계 없음의 상태를 지향하고 있다. 서정시의 높은 경지에 도달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그의 시편 「상봉」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時間이여

21) 서정주, 『미당 서정주 전집 · 1』, (주)은행나무, 2015, 80면.

한 번 가곤 영겁으로 망실하는 그것이 아니라
무동 위에 무동 타듯

꽃주저리에 또 꽃주저리 달리듯
묵은 등걸 끝에 되 돌아와
무수히 이어 피는 時間이여

(……)

얼마나 다시 있을 이 환한 상봉이여
영원한 회귀 위에 피는 것이여

— 「相逢-鷄林에서」 부분

시간은 무한하고, 삶은 유한하다. 이 치명적인 간극은 일회성의 삶이 연속적인 원환 구조를 가진다는 데서 극복의 단서가 발견된다. 니체의 허무주의와 운명애가 빚어낸 이른바 ‘영원회귀’란 것의 공상적인 관념이 서정시의 무시간적인 경지에 도달하며, 또한 이때 자아와 세계는 경계 없는 융합 속에서 무(無)로 향해 영원히 되돌아간다. 나뭇가지에 꽃이 핀다는 것이, 한번 진 꽃이 때가 되어 다시 만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또 시인의 직관에 의해 칼나의 환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영원회귀의 초시간성에 대한 시적 표상이 「상봉」이란 제목으로 인용된 시다.

4. 서정주의 신라 정신과, 유치환의 경주 체험

자아와 세계의 간극을 소멸하고자 하는 것이 서정시의 장르적 성격이 지향하는 구경(究竟)이라면, 유치환의 시가 서정주의 그것보다 더 서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서정주의 존재와 세계가 시간 속의 프레임에 놓여 있다면, 유치

환의 그것들은 시간 속의 프레임에 놓인다. 서정주의 신라 정신은 역사의식과의 관련성을 맺으려 했다. 이러한 관련성의 극점에 ‘시로 읽는 한국사 반만년’의 시집 『학이 울고 간 날들의 시』(1982)가 놓인다. 반면에, 유치환의 경주 체험은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언어의 카오스를 지향한다. 두 사람의 생활 습관 역시 독서와 사색으로 각각 나누어진다.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 및 한계를 가리켜 프레임이라고 한다면, 서정주는 신라를 시간의 프레임에 맞추고, 유치환은 경주를 공간의 프레임에 맞추었다. 어쨌든, 서정주의 신라 정신이 역사의식의 변용을 지향한다면, 유치환적인 경주 체험의 지향성은 몰역사적이다. 이 대목에서, 주문(呪文)의 시적 상태로 도달하려는 시의 계보가 언어의 카오스, 언어의 무정부 상태에 다소 기울어진 유치환에서 비롯되었던 것이 아닌가, 하고 조심스레 생각해본다. 이 가설²²⁾을 검증하려면, 별도의 논문을 따로 써야 한다.

서정주의 신라 정신과, 유치환의 경주 체험은 비슷한 것 같지만 서로 뚜렷이 다르다. 시인 서정주에게 신라 정신을 형성하게 한 배후의 인물은 소설가 김동리의 백형(伯兄)이기도 한 김범부이다. 그는 소설 「황토기」의 역사(力士)들처럼 시운을 얻지 못한 채 일제강점기의 동양학자로서 불우하게 살았다. 고향이 경주이기도 한 그는 해방 후에 이르면 화랑의 역사적인 존재성을 민족정신의 표상으로 여겼다.

어쨌든 서정주의 신라 정신이 김범부의 정신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산문적 내지 학구의 체계로서 실현된 것이 『신라연구』이다. 이것은 그의 동국대학교 교수 자격을 획득한 논문이기도 했다. 신라 정신의 시적 성취는 1960년에 간행한 자신의 네 번째 시집인 『신라초』에 실려 있는 일부의 시편들이었다. 말하자면, 이상과 이념의 공간인 신라를 선행적인 고향으로 삼았던 시정신의 표상이 바로 그의 신라 정신이었다. 이를 가리켜 본인 스스로는 ‘영원주의’라고 말한 바 있었다. 이 영원주의는 무시간성 및 초시간성의 개념이 아니라, 일종의 시간성의 이념적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22) 유치환의 고향 후배이면서 시창작의 가르침을 구한 김춘수의 무의미성의 시학, 또 이를 계승한 이승훈의 비대상성의 시학을 소급하는 원류가 유치환이라는 가설을 말한다.

내 시정신의 현황에 대해서는 최근 몇 군데 말해 보였지만, 간단히 말하여서 영원주의라는 말로써 제목할 수 있는 ‘역사의식의 자각’ 그것이 중심이 되어 있다.²³⁾

서정주의 소위 신라 정신은 시집 『신라초』와 『동천』에 이르러 활짝 꽃을 피웠거니와, 그의 역사시집인 『학들이 울고 간 날들의 시』에서도 그것은 정신적으로나, 심미적으로 더 확충되어 갔다. 신라라는 하는 이름의 기둥말은 이른바 ‘풍류’로 대체된다. 신라의 풍류는 다름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잘 따르는 일이라고 한다.

요컨대 서정주의 신라 정신은 역사의식의 자각이다. 자신의 시집들에서 시간성의 감수성이 잘 드러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마지막으로 앞으로 남는 문제는 유치환의 경주 체험의 시편들을 서정주의 신라 정신과 어떻게 비교하고 또 대조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 두 시인이 지향하는 영원성의 문제는 동질적인가, 이질적인가 하는 문제도 흥미롭게 남아 있을 것이며, 신라 정신이 역사의식의 문제에 어떻게 매개적인 관념으로 개입하게 되었으며, 경주 체험이 시의 상상력에 현실의 바탕에서 영향을 어떻게 끼칠 수 있었느냐 하는 문제도 긴요하게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유치환이 체험한 경주는 서정주의 관념적인 시간의식에 자리하고 있는 신라로 영속되는 매개 개념이 아니다. 그에게 있어서의 경주는 삶의 직접성에 뿌리를 내린 실존적 거점으로서의 장소 개념이다. 따라서 그의 장소정체성은 시적이면서도 동시에 지리적인 감수성을 환기시키는 조건이 되었던 것이다.

유치환은 서정주의 경우처럼 역사에 대한 관심이 크게 없었다. 역사에의 관심을 충족시키려면 끊임없는 독서를 통해 충족을 실현해야 한다. 서정주가 삼국유사 등의 고서를 읽으면서 역사를 공부했지만, 유치환의 집에는 사전류 외에는 별다른 책이 없었다. 그는 독서보다는 사색을 매우 즐겼다. 그는 평소 에 시를 공부하는 젊은이들에게 ‘책을 읽지 말고 스스로 사색하라.’고 조

23) 서정주, 「역사의식의 자각」, 현대문학, 1964, 9, 38면.

언을 하고는 했다.²⁴⁾ 서정주의 신라 정신이 역사의식의 자각에서 비롯했다면, 유치환의 경주 체험은 사상의 깊이와 더불어 자신의 내면 풍경이나 지금-여기에 놓인 삶의 풍경을 드러내는 것의 한 소산이었던 셈이었다. 신라 정신이 시간성의 구현이라면, 경주 체험은 장소성의 현현이다. 장소성이란, 인간에 의해 부여된 특정된 장소의 의미를 가리키고, 또 이는 장소애(場所愛), 장소 상상력, 공간 감수성 등의 개념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유치환의 경주 체험이 반영된 시들은 경관(景觀)의 시이다. 경관이라고 해서 경치나 풍경을 말하는 건 아니다. 경관은 경관적인 요소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총체 개념으로서, 다양한 힘들의 순간적인 균형 및 평형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지리적인 양상불인 것.²⁵⁾ 따라서 그에게 있어서의 경주는 자신의 삶의 실존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종의 경관으로서, 불꽃처럼, 절규처럼, 돌연한 미소처럼 문득 솟아오른 것이었다.

주지하듯이, T. S. 엘리엇은 20세기의 문명을 상징하는 ‘황무지(불모지)’라는 삭연한 경관을 만들었다. 비평가 이상섭은 엘리엇이 이 경관을 통해 탁월한 철학적인 시를 빚어냈다고 상찬한 바 있다.

죽은 자들과 함께 우리는 태어난다.
보라, 그들이 돌아온다. 우리와 함께 온다.
붉은 장미의 순간과 검은 향나무의 순간은
길이가 같구나. 역사가 없는 민족은
시간에서 구원되지 못한다. 역사란
무시간의 순간들이 빛는 형상인 까닭이다.

서정주의 신라 정신과 유치환의 경주 체험 중에서 어떤 것이 시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일까? 시간성과 장소성, 역사의식과 공간 감수성 가운데 시적인 가치의 추는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는가? 이에 관한 대답은 엘리엇의 경우처럼 시간과 무시간의 교차점이 파악되는 종합적인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4) 허만하, 앞의 책, 94면, 참고.

25) 전종한 외, 『인문지리학의 시선』, 논형, 2005, 274면, 참고.

는 데 놓여 있다. 탁월한 철학적인 시를 빚어낸 이 경지는 산자와 죽은 자, 시작이 끝이며, 끝이 시작이며, 탄생이 죽음이며, 죽음이 탄생이라는 의식이 전환이 필요한 경지다. 무시간성이니 초시간성이니 하는 것도 이러한 의식에서만 가능하다.²⁶⁾

유치환의 시는 역사적이라기보다 명상적이다. 그는 평소에 과묵하고, 술과 사람들을 좋아해도 말주변이 없고, 또 그에겐 혼자서 명상하는 시간이 잦았다. 시인이나 소설가가 다변에 능변일 것 같으면, 통속적인 표현이 허용된다면 역사를 ‘구라치는’ 일이 많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의 시는, 특히 경주 체험의 시는 일종의 경관으로서, 불꽃처럼, 절규처럼, 돌연한 미소처럼 문득 솟아오른 것이 아닐 수 없다.

5. 약론(略論) : 마무리는 말

본 연구는 ‘유치환의 경주 시절과, 시의 공간 감수성’ 을 주제로 삼은 논문이다. 지금까지 시인 유치환의 경주 체험을 중심으로 삶의 전기적인 부분을 복원해 보면서 시의 구체적인 체험의 반영을 공간 감수성의 차원에서 탐색해 볼 수 있었다. 마지막 정리의 부분에 이르러, 지금까지 전개해온 논지를, 다음과 같이 네 부분으로 나누어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유치환의 경주 시절의 삶을, 증언된 기록을 통해 재구성하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는 그의 경주고등학교 제자인 서영수의 글 「청마 시인과 경주」 이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었고, 그 밖에 청맥 동인으로서 유치환을 교장으로 모셨던 당시에 경주고등학교 교사를 재직한 시인 김해석의 「위대한 시인의 위대한 아내」 란 산문과, 허만하의 저서 『청마풍경』 도 보조 자료로 활용되었다.

둘째, 유치환의 시에 반영된 경주 체험의 구체적인 양상을 밝히고자 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의 두 시편이다. 경주 시절의 시편 「잠자리-석굴

26) 이상섭, 『역사에 대한 불만과 문학』, 문학동네, 2002, 308-311면, 참고.

암(石窟庵)에서」는 「석굴암대불」에서 공간 속에서 시간이 무화되는 경우처럼 ‘억년 비정’의 초시간성을 소재로 한 것이다. 영겁이란, 다름이 아니라 외롭게 떠 있거나 떠다니거나 하는 목숨의 반증이 있어야만 존재하는 순수한 허무의지이다. 경주 시절의 유치환이 창작한 최고의 명시인 「고분에서—경주 황오리 오(五)호총」는 시가 가지는 특유한 공간성, 장소정체성 및 공간 감수성이라고 해도 좋을 공간성을 지니고 있다.

셋째, 유치환의 경주 체험이 반영된 시편을 중심으로, 공간 감수성의 시학의 실체를 밝히고자 했다.

서정시가 시간의 순차적인 단계에 따라 삶의 진행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공간의 조형성 속에서 무시간(성)의 성취 경험을 조성해 보이는 것이라면, 유치환의 시편 「고분에서」는 서정주가 보여준 윤희와 연기의 시학과 맥락을 함께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또 그의 시에는 윤희 사상과는 별개의 회향(廻向)의 삶의식을 수반하기도 한다. 그의 경주 체험을 드러낸 또 다른 시 「사면불」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넷째, 서정주의 신라 정신과, 유치환의 경주 체험이 서로 다른 점을 비교론의 관점에서 파악하려고 했다.

서정주의 신라 정신과, 유치환의 경주 체험은 비슷한 것 같지만 서로 뚜렷이 다르다. 신라를 선험적인 고향으로 삼았던 서정주의 표상이 바로 서정주의 신라 정신이었다. 이것은 소위 역사의식의 자각이다. 자신의 시집들에서 시간성의 감수성이 잘 드러나고 있다. 반면에, 유치환이 체험한 경주는 서정주의 관념적인 인간의식에 자리하고 있는 신라로 영속되는 매개 개념이 아니다. 그에게 있어서의 경주는 삶의 직접성에 뿌리를 내린 실존적 거점으로서의 장소 개념이다. 따라서 그의 장소정체성은 시적이면서도 동시에 지리적인 감수성을 환기시키는 조건이 되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경주 시절의 유치환에 대한 삶의 재구성, 유치환의 시에 반영된 경주 체험의 구체적인 양상, 유치환의 경주 체험이 반영된 시편을 중심으로 한 공간 감수성 시학의 실체, 서정주의 신라 정신과 유치환의 경주 체험의 서로 다른 점 등을 파악하려고 한 논문이었음을 거듭 밝혀둔다.

[ABSTRACT]

Yu Chi-hwan's Gyeongju days and the space sensitivity of poetry

Song, Huibog

Jinju National Univ. of Education

1. This paper is composed of three parts related to a Korean poet, Yu Chi-hwan.
2. Yu Chi-hwan lived moving around here and there frequently. Reconstructing his biographical life, it is a meaningful period for him to live in Gyeongju, an ancient city of Korea.
3. His experience of Gyeongju period contributes to develop his poetics of space sensitivity. In those days, his lyric poetry aims at the state of timelessness.
4. Gyeongju is the capital of ancient Silla. While poet Seo Jeong-ju's Silla spirit has a meaning from the sense of time, Yu Chi-hwan's experience of Gyeongju has a significance from the sense of space.

Key words : Yu Chi-hwan, Gyeongju, Gyeongju-experience, poetics of space sensitivity, sense of space

참고문헌

□ 단행본

- 김화영, 『공간에 관한 노트』, 나남, 1987, 43면
박철석 편저, 『유치환』, 문학세계사, 1999, 205-327면
서정주, 『미당 서정주 전집 · 1』, (주)은행나무, 2015, 77-80면.
이상섭, 『역사에 대한 불만과 문학』, 문학동네, 2002, 308-311면
전종한 외, 『인문지리학의 시선』, 논형, 2005, 270-274면
청마문학회 편, 『다시 읽는 유치환』, 시문학사, 2008, 386-401면
최현식, 『서정주 시의 근대와 반근대』, 소명출판, 2003, 182-203면.
허만하, 『청마풍경』, 술출판사, 2001, 67-93면.

□ 논문 및 평론

- 김덕현, 「장소와 장소 상실, 그리고 지리적 감수성」, 『배달말』, 제43호, 2008, 12, 4-9면.
서정주, 「역사의식의 자각」, 현대문학, 1964, 9, 36-39면.
이경철, 「미당 서정주 평전 · 9」, 『문학의 오늘』, 2015, 봄, 258-260면.

이 논문은 2016년 03월 04일 접수되어 04월 12일까지 심사받아 04월 15일 게재 확정됨.